

“한국불교계 인재양성 안되고 있다”

본지 설문 “인식 부족”·“외향적 불사 우선 풍조” 가장 큰 이유

포교·사회참여·신도수준 향상 필요

불자 10명 중 8명은 불교인재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재가 교육체계를 바로 잡아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가가 대중의 사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불자도 70%나 됐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다소 우세했다. <관련기사 4·5·6면>
이같은 결과는 본지가 2003년 신년 기획특집으로 실시한 ‘불교 인재양성 및 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시와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 등 전국 주요종단 120여 사찰의 신도회 및 청년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남자 273명(39.9%) 여자 411명(60.1%) 등 모두 684명이 설문응답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인재양성(승·재가 포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그 주된 이유로 ‘인재양성 인식 부족’(38.1%)과 ‘외향적 불사 우선 풍조’(32.0%)를 꼽았다. 승가와 재가교육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안 또는 전면 재검토해

야 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각각 56.6%와 53.1%로 절반을 넘었으며, ‘체계 미흡’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승가가 대중의 사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5.3%가 ‘아니다’라고 답한 반면,

‘그렇다’는 답은 203명(29.7%)에 그쳤다. 위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여자보다는 남자가, 10~30대 보다는 40대 이후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전망해 달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38.4%가 ‘밝다’고 답해, ‘어둡다’(22.7%)는 답보다 높았다.

‘현재를 유지하는 정도일 것’이라는 응답은 37.4%로, 불자들은 대체적으로 불교가 현 상태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자들은 또 불교발전을 위해 ‘포교 확대’(20.4%) ‘승가자질 향상’(17.5%) ‘사회참여 확대’(15.5%) ‘신도수준 향상’(14.5%)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불교공부의 주된 방편으로는 ‘스님 법문’(35.5%) ‘수행(참선, 기도 정진 등)’(27.5%) ‘불교교양서적’(17.1%) ‘경전’(15.7%) 순으로 꼽혔으며, 응답자의 44%가 신도회(청년회)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우 기자 mwahn@buddhopia.com

동국학원 이사장 정대스님

만장일치 선출, 24일부터 임기 시작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12월 23일 동대 회의실에서 제188회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20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사장 정대스님은 2003년 1월 24일부터 임기가 발효된다. 12월 24일 교육부로부터 임명통지를 받은 신임이사장 정대스님은 “신임 동국대 총장을 모시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사장을 맡게 됐다”

며 “학원의 모든 일은 이사들과 상의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사회는 정대스님을 동국학원 이사로 재임명했으며, 12월 23일부터 1월 23일까지의 임기인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한편 관심을 교계의 모으고 있는 동국대 총장 선출과 관련된 내용은 1월말 열리는 추경이사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새 포교사 279명

박병곤씨 수석합격 영예

포교사 279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12월 20일 제8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조계사 불교대학 조준현 씨와 부산 대광불교대학 박병곤 씨가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68세의 경북불교대학 박주화 씨와 24세의 강

진불교대학 박수진 씨는 각각 최고령, 최연소 합격자로 뽑혔다. 합격자를 배출한 38개 불교대학 중 부산불교교육대학이 43명으로 가장 많이 합격했으며, 조계사불교대학(38명), 영남불교대학(20명), 동산불교대학(16명), 부산 대광불교대학(15명)이 뒤를 이었다. 이번 포교사고시에 416명이 응시, 11월 24일 1차 필기시험과 12월 8일 2차 면접 및 논술시험을 치렀다. 박병영 기자

틱낫한스님 3월 19일 방한

다보수련원서 명상프로그램 체험 행사 예정

<화>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등 국내 독서계에 ‘틱낫한 바람’을 몰고 온 틱낫한 스님이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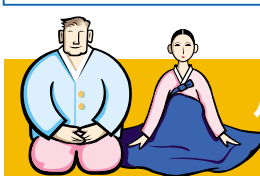
19일부터 4월 2일까지 방한한다.

대한불교진흥원과 명진출판사 공동 초청으로 한국에 오는 스님은 방한 기간 중 서울, 부산, 계룡대 등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평화에 대한 강연회와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불교진흥원 관계자는 “명진출판사와 협의 후 불교행사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에서 ‘플럼빌리지’라는 명상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원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 입적원 일동



<더 이상 산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회통사 스님들이 새해 아침 북한산 관동로 공사현장을 찾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산은 산이어야 한다

더 이상 산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멋대로 파괴되는 개발 대상일 뿐이다. 그 좋은 예가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였다. ‘좀 더 편하게’라는 개발의 관성은 환경 문제를 가볍게 압도해 버렸고, 산사의 수행 환경 문제는 한가한 소리로 치부됐다. 이러한 개발 논리는 북한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서울 부산 간 두 시간 주파라는 속도의 신화 앞에 천성산과 금정산은 무력했다. 고산 습지생태의 보고라는 높도 흔적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남해의 해상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통영 미륵산에는 관광소득 증대를 명

목으로 케이블 카를 설치하려 한다. 돈이 가치의 꼭지점에 앉아 있는 이 시대의 우울한 초상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 사람다운 삶의 조건이 자연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양심의 소리는 조금씩 세상을 움직였고, 풀 한 포기 부처의 몸으로 여기는 불교계에서는 이 시대 공업 증생을 대신하여 오체투지의 기도로 참회했다. 지난 해 여름, 30도가 넘는 피야벌 아래서 수경스님을 비롯한 회통사 비구니 스님들은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에 땀을 쏟아냈다. 그 땀은 온갖 탐욕에 물든 이 시대야말로 화랑지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지난 해 여름 북한산 철마선원에서 북한산 지킴이 역할을 했던 종호스님은 “지금은 선방에서 동안거결계에 중이지만 이 결계가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보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선방에서 화두를 들고 있는 마음이나 환경 보호를 외치는 마음이 결코 둘이 아니듯이, 수행의 차원에서 북한산 파괴는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산이어야 한다. 천년 전에도 산이었고 천년 후에도 산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도 인간답게 살아남을 수 있다. 만물을 부처로 섬기는 불자로서는 이러한 신념에 더욱 투철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신년특집 포함 총 40면 발행

2003년 불교계 무슨 일이...	3면
시방세계-유엔 지정 ‘세계 담수의 해’	7면
각 종단 중정 신년 법어	9면
불교지도자 계미년 계획	11면
미국 이민 100·포교 40주년 기획	14면
세계의 불교여성지도자들	23면
제8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24·25면
불자들의 새해 발원	26면
지상 백고좌-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30·31면

설문 ‘불교계 인재양성과 교육 어떻게’	4면
조계종 승·재가 교육체계는	5면
인재양성·활용 실태	6면